

## [ 오피니언 ]

## 테마칼럼

여성세계

정치프리즘

경제의 눈

문화·인문

김신명숙  
(작가)

“

전후보자가 법관으로서의 실력과 진보적 시각, 소수자에 대한 관심을 가진 여성이라는 사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역사적 통찰'이 필요하다

”

전효숙 현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명절차상의 문제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과정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심정은 허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다. 어디라고 할 것도 없이 나라를 움직이는 주요 기관과 조직들의 전반적인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됐나 싶어 허탈하고, 그런 와중에 첫 여성 현재소장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가 도외시되고 있는 현실이 못내 답답하다. 여성 총리에 이은 여성 현재소장의 탄생이 한국 여성은 물론 한국 사회의 미래에 가지는 합의는 정략적 계산이 앞선 절차상의 시비 문제로 뒷전에 밀릴 수 없는 중차대한 것이다.

현법재판소는 국가준법의 근간이 되는 현법에 관련된 문제들을 판결하는 곳이다. 그런데 현법 재판 업무는 법조문의 단순한 형식논리만을 따지는 기술적 작업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통찰과 시대를 읽는 눈, 국가공동체의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현법 재판과 시대의 변화를 아우르는 출중한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거칠게 말해 현법재판소의 판결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한다. 그런 중요한 기관의 수장에 여성이 앉는다는 것은 단순히 최고위직 여성이나 더 늘어났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우리 사회의 질적이고 전반적인 변화와 연결돼 있다. 그 좋은 예를 우리는 독일 최초의 여성 현재소장이었던 유타 린바흐(Jutta Limbach·72)에게서 찾을 수 있다.

“여자들이 변화를 부른다” 린바흐가 현재소장에 지명되고 난 직후인 1994년 여름 '슈피겔'지에 실린 인터뷰 기사의 제목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폐미니스트 법학자이자 사회민주당원으로서 베를린시 법무장관도 지낸 그녀는 인터뷰에서 '현법재판소 여성의 숫자가 늘어나면 풍토가 바뀔 뿐 아니라 남성중심적 현실인식이 교정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여성들은 다른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 특정한 상황에서 남자들과는 다르게 현실을 파악할 뿐 아니라 남자들과 다른 삶의 경험 때문에 똑같은 법적 문제에서도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여성은 많아지거나 여성과의 강해지면 남성이 지배적일 때와는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어 세상이 그만큼 균형잡히고 다양하게 발전한다는 얘기였다.

린바흐는 2002년까지 현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차별성을 분명히 드러냈다. 그녀는 인권과 시민권,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에 특히 민감하게 대응했으며 전쟁에 반대하고 외국인과 외국문화를 수용하는 '진보적인 판결들'이 들어왔다. 그 판결들 때문에 심한 반발에 부딪쳤기도 했으나 그녀는 특유의 낙천주의와 강인함, 일관성, 성숙한 역사인식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현재소장 뒤임후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고 현재도 독일문화원 총재

로 활발히 활동하며 폭넓은 존경을 받고 있다.

현재소장이 되기 전 린바흐는 현법에 여남동등권을 더 보장하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옹정한 유타'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 그에 걸맞게 가정생활에서도 폐미니스트로서 철저한 모범을 보였다. 그녀와 남편은 서로 다른 지역에 일터가 있어 결혼 직후부터 줄곧 떨어져 생활했는데 세 아이의 양육은 보모의 도움 아래 남편이 맡았다. 린바흐보다 조용하고 늘 변함없는 남편이 아이양육에 더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런 사실에 미안함을 표현하기는커녕 '떨어져 산 것'이 오랜 결혼생활 성공의 비결이라고 당당하게 밝히는 여자가 린바흐다.

전효숙 후보자는 우여곡절 끝에 현재소장으로 임명된다면 그녀가 한국여성과 한국사회에 어떤 변화를 자극할 것인가는 아직 미지수다. 사람도 다르고 속한 사회도 다르니 같은 직위지만 두 여성의 활동과 영향력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전후보자가 법관으로서의 실력과 진보적 시각, 소수자에 대한 관심을 가진 여성이라는 사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역사적 통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12년전 독일과 다를 이유가 없지 않을까?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시설 ]

## ‘추석 경기’마저 사라진 밀바닥 지방경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주·전남 지역은 예년과 달리 백화점에서부터 재래시장에 이르기까지 명절 대목 분위기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한다.

하반기 들어 뚜렷해진 실물 경기 하강 국면에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추석 특수(特需)마저 실종돼 불황의 터널이 더욱 깊어지는 것 아니지 우려스럽다.

추석 경기를 가능하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지역 백화점의 추석 선물 예약률이 경기가 최악이라고 했던 지난해의 50%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30%대에 그치고 있다. 재래시장 상인들은 “올해는 추석 대목이 이에 없는 것 아니냐”며 한숨을 쉬고 있다고 한다. 명절 대목이 아니라 명절 불황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라는 얘기까지 나온 정도다.

광주·전남 지역 불황의 심각성은 3~4년 전만 해도 상위권에 속했던 광주 지역 백화점의 올 매출 신장률이 전국 지

점 중 최하위권으로 밀려난 데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는 ‘위기 경보’나 다른 없다. 소비 위축은 기업 투자와 고용 감소로 이어지면서 아예 성장 기반을 무너뜨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IMF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4.5%에서 4.3%로 낮춰 전망하는 등 본격적인 경기 하강 징후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도 지역 경제의 앞날을 암울하게 하고 있다. 불안한 국내외 경제여건은 체질이 약한 지역 경제에 직격 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상황이 이런 만큼 정부는 지방 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인식하고 체감 경기의 가장 민감한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 등 소비심리를 부추길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것은 지방 기업에 불리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지원은 대폭 늘리는 등 지방 경제 환경을 개선하는 일입니다는 두 말할 필요가 없다.

## 전교조, 차등 성과급 반납투쟁 중단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차등 성과급 반납 투쟁을 강행했다. 전교조는 14일 광주·전남을 비롯 전국 시·도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성과급 반납을 시도했다. 시·도교육청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성과급 접수를 거부해 반납은 무산됐지만 전교조의 강경 투쟁을 지켜보는 심정은 닫았다.

교직 사회도 예외일 수는 없다. 학생들은 보다 우수한 교사에게 배울 권리가 있다.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할 수 없지만 공교육이 봉고된 미망에 교원평가 제도를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현실에서 교원 평가제를 거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성과급 차등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데다 차등 비율도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에는 크게 뜻이 치고 있다. 정부는 4년 전부터 90%를 균등 배분하고 10%만 차등 지급 하던 것을 80% 균등 배분, 20% 차등 지급으로 변경했다. 당초 차등비율을 50%까지 확대하려 했지만 전교조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30%로 줄

인데 이어 20%까지 후퇴했다.

성과급 차등 지급은 교원평가제와 맞물려 있다. 우리 사회에는 개인의 능력이나 근무 평가에 따라 임금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풍토가 보편화되어 있다.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고육지적인 것이다.

교직 사회도 예외일 수는 없다. 학생들은 보다 우수한 교사에게 배울 권리가 있다.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할 수 없지만 공교육이 봉고된 미망에 교원평가 제도를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현실에서 교원 평가제를 거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전교조는 차등 성과급 반납 투쟁을 중단해야 한다. 전교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게 굳어 있다.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교사 이익만을 대변하고 정치·이념 투쟁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전교조는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냉철히 판단하길 바란다.

## 無等 鼓

<제리 플레처는 뉴욕의 영업용 택시 기사. 그는 식수에 섞여 있는 비금속원소나 국제금융정책의 비밀, 우주선이 발사될 때마다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하는 이유 등을 승객들에게 들려준다. 최근엔 누군가 대통령 암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 있다...>

낯익은 이 시놉시스(synopsis)는 멜깁슨과 줄리아 로버츠가 연출한 '컨스피리시'(Conspiracy Theory, 1997)다. 영화는 그 제목처럼 음모론(陰謀論)에 관한 이야기다. 음모론은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의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 할 때, 배후에 거대한 권력조직이나 비밀스런 단체가 있다고 믿

는 것이다. 그 특징은 '격동기나 혼란스러운 시기에 많이 유포된다'는 게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음모론은 1903년 러시아의 한 신문이 폭로한 '시온 장로들의 의정서'다. 이 극비문서의 내용은 "...사치와 폐력을 조장하며, 국가간의 종오십을

부채질하고, 세계적인 경제파탄을 일으켜 모든 황금이 유대인의 손에 들어오게 한다'는 내용이었다.

미국은 로스웰 UFO 추락(1947)을 은폐했다,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1969)은 허구였다, 다이애너는 영국 정보기관 MI6에 의해 암살(1997) 당했다...는 등등의 음모론은 지금도 회자(膾炙)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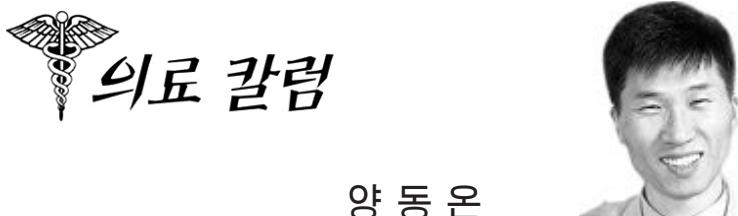
9·11 테러 5주년을 전후, 인터넷에선 '루즈 체인지'(Loose Change)가 공개한 다큐멘터리가 폭발적인 기다. 제작자는 세계 무역센터(WTC)가 미리 설치된 폭발물로 인해 붕괴했으며, 그 배후는 미국이라고 주장한다. 건물주가 사

건 발생 6주 전 35와 달리 짜리 테러 보험에 기입했고, 지하에 있던 1천 600억 달러 금고 중 2억 달러만 발견됐다는 점도 정황 증거로 제시된다.

이 자료가 시사하는 것은 결국, 테러의 시작과 끝이 미국이라는 게 아닐까?

/정기 사회 1부장

meonsan@kwangju.co.kr



양동온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사회 투자 정책 4대 역점과제'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만 16세, 40세, 66세 연령층에 이르는 모든 국민은 나이에 알맞은 이른바 '맞춤형 건강 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만 16살의 고교 1년생 등 청소년은 내년부터 기존의 질병검사에 더해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을, 만 40살의 모든 국민은 위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등 4종의 암검진을, 만 66살의 노인들은 기존의 대장암 등 5종 암검진에 노인성 질환인 안경환·골밀도·치매검사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들 세 연령층은 188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그동안은 검진 항목이 나이별

## 기고



황병길

장애인에게 있어서 직업이라는 절박한 생존권 문제이다. 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 장애인 복지, 장애인의 인권을 말하고 있지만, 장애인에게 정착 필요한 건 생활의 일자리다. 나머지는 다 뒷수위로 밀려도 좋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2% 이상 고용 강제규정 덕분인지 장애인 고용 정책은 그간 다소 성과를 거뒀다. 2005년 전국의 장애인 고용률은 1.49%(고용인원 55,009명)로 전년 1.49%(46,674명)에 비해 0.18%p(8.33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들은 다양하고 특화된 프로그램과 세심한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으로 실제 검진을 받는 환자들에게 편의를

감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한 예로 텔레마케팅회사인 (주)CJ텔리니스는 장애인을 고용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

이 회사는 장애인 고용을 늘린 뒤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고, 비장애인들은 과중한 업무량을 이유로 쉽게 회사를 떠났지만 장애인들은 이직자가 한명도 없었다고 한다. 지금처럼 속련된 인력구하기 힘들 때 인력충원을 위한 아주 좋은 방안이 하니이기도 하다.

장애인들은 적절한 지원만 해주면 건강한 직장인이 될 수 있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중요한 한 구성원이다.

우리는 장애의 차이를 인정하지만 차

## ‘1·2운동’을 아십니까

특히, 기업 규모별 고용률을 보면 50~300인 미만 사업장은 1.67%, 300~500인 미만은 1.60%, 500~1,000인 미만은 1.49%, 5,000인 이상 사업장은 1.13%다. 큰 기업 일 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것이다.

광주·전남의 경우 300인 이상 고용의 무업체 62개 소중 2%를 달성한 기업은 13개 소로써 20.1%에 불과하고 반이 넘는 51.6%가 1% 미만이다.

광주지방 노동청은 이러한 저조한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작년부터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과 함께 ‘1·2 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1·2운동’이란 장애인 고용률을 1% 미만 기업 줄이기 운동은 지속화되고, 1% 달성을 각종 지원을 통해 2% 조기 달성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장애인을 고용한다는 것이 얼핏 거부

별하지 않고 함께 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 의사만 표명하면 광주지방 노동청과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이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사업장에 맞는 직무분석을 하고 장애인 적합 직종을 찾아내 함평에 있는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센터를 통해 맞춤훈련을 실시하여 적정 직업능력을 갖춘 장애인을 취업 알선을 할 계획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편의고 알리는 1석 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더구나 2%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서 추가 고용할 때에는 장려금도 지원한다.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의 달인 9월을 맞아 특히 대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을 기대해본다.

<광주지방 노동청 고용평등과장>

## 시골마을 치안 허점 이용 농산물 도둑질 성행

최근 곡으로 직장 등료들과 봉사활동을 겸한 자체 연수를 다녀왔는데, 마을 한쪽에 '가축, 광장을 훔쳐가지 마세요'란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주민들은 외지인들이 간혹 차량을 이용해 가축과 농작물을 차량으로 쓰러뜨려 해간다는 것이다.

어린 아이들이 물을 소리마저 끊긴 마을의 싸움이 절도단. 벼룩의 간을 빼먹는 사람들은 아닌가.

▲나혜성·광주시 서구 서창동

## 선물 거절하는 선생님 통해 교단 불신 깨끗이 씻어

요”라고 극구 사양을 했다. 내민 내 손이 부끄러웠다.

그 일이 있은 뒤 스스럼없이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 문제를 얘기할 정도로 허물없이 지내고 있다.

촌자·체벌 문제를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봤는지 하는 후회도 생겼다. 주변에는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 많다.

그 선생